

지역경제계 관세폭탄 파고 넘기 분주

광주상의·광주경총·무역협회 등 글로벌 경제전망 잇단 강연·교육 트럼프 발언 선연적 효과 불리 광주·전남 1월 수출 23.7% 하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전쟁 선포로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지역 경제계가 위기 상황을 탈피하고자 갖은 애를 쓰고 있다.

관세의 영향을 받는 수출기업뿐 아니라 예측이 불가능한 미국 정부의 통상정책에 맞서 지역 기업들이 속해있는 단체와 협회 등에서 강연과 교육을 속속 계획하고 있다. 아직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관세 부과 관련 발언을 쏟아내면서 포럼 등에 대한 지역 기업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일 광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광주상의가 운영하는 광주FTA통상진흥센터는 오는 3월 6일 지역 수출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의 변화 교육'을 개최한다.

유명 관세사를 강사로 초청해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최근 발표된 관세정책의 흐름을 짚어보는 강연이다. 또 환율 변동성과 관세정책의

상호작용 등 기업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3시간짜리 강연을 마련했다.

광주상의가 지난 주 회원을 대상으로 강연계획을 공지한 뒤, 이날까지 접수인원은 전체 참석 가능인원의 절반이 넘어설 정도로 지역 기업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도 지난 18일 '제19회 광주전남 CEO 무역포럼' 주제를 '트럼프 2기 시대의 글로벌 경제전망과 대응'으로 설정하고 수도권 경제대학원 교수를 초빙해 1시간 가량 강연을 진행했다.

광주경총은 또 회원사 인사노무관리자 협의회와 미국의 통상정책 전문가를 불러 강연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 1990년 시작해 1670회가 넘어선 광주경총 금요조찬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연단으로 초청해왔는데, 시기가 시기인만큼 서둘러 관련 연사를 모색하고 있다.

광주경총은 또 회원사 인사노무관리자 협의회에서 실무자를 대상으로는 통상정책 강연도 계획 중이다. 아직 미국의 추가 관세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지난달 광주와 전남 지역 무역실적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 발언이 선연적 효과를 주면서 지역 수출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2025년 1월 광주·전남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3.7% 감소한 47.7억 달러를 기록했다.

광주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0% 감소한 11.6억 달러를 기록했고 전남은 전년 동월 대비 24.2% 감소한 36.1억 달러를 기록했다.

무역협회는 올 1월 장기간의 설 연휴로 조업일수가 감소해 수출이 일시적으로 둔화한 것으로 봤지만, 광주와 전남은 전국 평균 증가율(-10.2%)과 비교해 감소폭이 컸다.

광주는 자동차 부품과,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등 수출은 증가했으나 자동차, 반도체, 냉장고 등 수출은 감소했다. 특히 광주의 대미 수출은 4억달러로 지난해 1월(5.7억달러)보다 28.9%가 줄었다

전남은 국제 석유가격 하락 및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인한 수출단가 하락으로 수출액이 감소했다. 전남 역시 대미 수출액이 3억달러로 전년 동월(4.6억달러)과 비교해 34.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인해 대미 수출기업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며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계속해서 관련 교육 및 정보 등을 제공해 지역 기업들이 어려운 환경에도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입주시즌 집들이 선물 준비하세요"

디퓨저·향초 등 다양한 제품 선보여

광주신세계가 다가오는 봄을 맞아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제품들과 집들이 선물 등을 추천한다.

최근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른 향을 중요시하는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핸드워시' '디퓨저', '향초' 등이 집들이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 이같은 제품들은 집안의 향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소품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고급선물로 수요가 높다.

우선 본관 2층 '이솝'의 '레저렉션 아로마틱 핸드워시'는 갈색병의 디자인과 함께 깔끔한 세정력과 높은 보습력을 갖췄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도 '롭 스프레이'와 화장실 탈취제인 '포스트 푸드롭스' 등도 최근 많은 고객들이 찾는 제품으로 꼽힌다. '산타마리아노벨라'가 선보이는 '왁스테블릿'은

특정 공간에 걸어둘 수 있는 고체 형태의 방향제로, 액체 형태의 방향제인 '디퓨저'와 함께 집들이 선물용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 신혼부부 선물로 적합한 커트러리, 그릇 등 테이블 웨어 제품도 선보인다. 해당 품목의 주요 인기 브랜드로는 '사브르', '빌레로이앤보흐', '알레시' 등이 있다.

본관 8층에 입점한 '사브르'는 클래식한 디자인으로 한식, 양식 모두 잘 어울린다는 장점을 지녔다. 특히 최근 용도에 따른 수저, 포크, 나이프와 함께 젓가락도 신규 출시돼 선물용 세트로 적합하다.

이동훈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는 "광주신세계에서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집들이 선물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며 "각자 취향에 맞는 아이템으로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마음을 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정부, 중국산 후판에 27~38% 반덤핑 관세 부과 예고

"저가 수출 국내 산업 피해 근거" 무역위 판정 기재부에 부과 건의

정부가 중국산 철강 후판에 최대 38%의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세계적으로 중국의 밀어내기식 저가 수출이 경제 불안 요인으로 부상한 가운데 한국 정부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무역구제 정책을 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제457차 회의 열고 중국산 '탄소강 및 그 밖의 합금강 열연 강판 후판 제품' (이하 후판)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진행한 결과, 덤핑 사실과 덤핑 수입으로 인한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판정했다.

무역위는 향후 이뤄질 본조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 방지 관세 27.91%~38.02% 부과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기업별 예비 덤핑률은 바오스틸 27.91%, 장쑤

사강 29.62%, 샹탄스틸·사이노 인터내셔널·사면 ITG 38.02%, 기타 공급자 31.69%다.

우리나라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체계는 산업부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거쳐 건의하고, 기획재정부 가 이를 집행하는 체계로 되어 있다.

덤핑 방지 관세는 외국 기업이 자국 판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해당하는 덤핑으로 상품을 수출했을 때, 해당 수출품에 추가 관세 격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조치다.

앞서 현대제철은 작년 7월 중국 업체들의 저가 후판 수출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반덤핑 제소를 했다.

두께 6mm 이상으로 두꺼운 철판인 후판은 선박 제조용이나 건설용 철강재로 주로 쓰인다.

국내 시장 규모는 8조원대에 달해 정부 결정이 국내 철강사와 조선·건설사 등 수요 기업에 각각 다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국내 후판 생산 기업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3곳이다. 후판 생산 국내 기업들은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반덤핑 제소를 한 현대제철의 경우 후판 매출 비중이

약 15%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원료인 후판 가격 상승으로 조선사 등은 제조 비용이 커져 부담될 수 있다.

그간 국내 철강 업계에서는 중국 업체들의 저가 수출 탓에 정상적 사업을 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쌓여왔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작년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철강재는 877만(으로 2017년(1153만) 이후 7년 만에 최대 수준이었다.

정부는 과거에도 중국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 등 여러 다른 해외 제품에 잠정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한 적이 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급에 따른 국내 철강 산업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반덤핑 조사에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이날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제품과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산 폴리프로필렌 연신(OPP) 필름의 덤핑 방지 관세 부과 조치 연장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결정도 내렸다. /연합뉴스

바다 청소하고 100만원 받으세요

수협 매달 3개 단체 경비 지원

수협중앙회가 해안가를 청소하면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바다 기르기 캠페인을 다음 달부터 진행한다.

'모두의 바다, 함께海(해)' 캠페인은 전국의 항·포구와 해안가 등을 청소하는 것으로 20인 이상의 시민단체나 학생 동아리, 동호회, 친목회 등 단체나 모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단체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매달 3개 단체로, 수협중앙회가 선정한다.

다음 달 활동을 위한 참가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수협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007년부터 수산 자원 조성고 바다 환경 개선을 위해 '희망의 바다 만들기 운동'을 진행 중이다.

올해에는 32억원을 투입해 수산 종자 방류와 해양쓰레기 수거, 유해 생물 퇴치에 나설 방침이다. /연합뉴스

전남지역 92개 기업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

융자 한도 상향·이자 지원 혜택

전남지역 92개 기업이 청년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돕는 청년 기업으로 인증됐다.

'전남도 청년기업 인증제도'는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 18세에서 45세까지 청년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연중 선발해 인증한다. 해당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자금 등

다양한 정책자금의 융자 한도액(상품별 약정 융자액에서 최대 5억 원)을 상향 지원하고 융자금 이자가 지원되는 이자 차액(2.4%p)에 0.5%포인트를 더 지원해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또 인증 기업이 전량형 중소기업 육성 등 각종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하면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제공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도 연계돼 청년 기업가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지을 기자 dok2000@

GICON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기업 모집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GICON)이 '2025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될 우수한 창업기업들을 모집한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및 안정적인 성장 등을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GICON은 올해로 9년째 매년 해당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최대 3억원의 지원자금과 글로벌 진출 지원, 투자 연계, 전문가 멘토링, 마케팅 지원 등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GICON은 유관기관 및 스타트업 투자협의체 등과 협력해 창업기업들의 성공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모집대상은 인공지능(AI), 콘텐츠, 제조, 서비스 등 전 산업 분야에서 유망한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 3~7년차 도약기에 접어든 창업기업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3월 13일까지 'K-startup 창업지원 포털 누리집'에서 주관기관으로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을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농어촌공사 다음달 25일까지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

한국농어촌공사가 오는 3월 25일까지 '제 2회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청년농업인, 누군가의 계기가 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영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 농업인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에 도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대상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를 지원받고,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이다. 공모 참여자는 농지은행사업을 활용한 계기, 영농 창업 과정, 사업 지원 전후의 변화 및 소득 증가 경험 등을 작성하면 된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654.06 (+17.46)
↓ 코스닥	768.27 (-10.00)
↓ 금리(국고채 3년)	2.628 (-0.002)
↑ 환율(USD) (오후 5시 55분 기준)	1439.75 (+1.25)

광주은행, 복구청과 소상공인 포용금융 이차보전 업무협약

서민금융 신규대출 5종 지원

광주은행은 지난 18일 복구청과 '2025년 포용금융 이차보전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문인 복구청장과 유재욱 서민금융진흥원 상임이사, 김중훈 광주은행 부행장 등이 참석했다. <사진>

이번 협약은 고금리·고물가 등 경기침체로 경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복구에 사업장이 있는 저신용·저소득 소상공인에게 서민금융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대상 상품은 '포용금융 특별대출', 'KJB새희망출씨 II', '햇살론15', '햇살론뱅크', '최저신용자특별보증' 등 총 5종이다. 복구청은 해당 상품 취급 후 1년간 5.0%를 이차보전 하기로 했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부터 광주은행 전 영업점을 통해 가능하며, 이차지원액은 총 7500만원으로 선착순으로 지급한다.

김중훈 광주은행 부행장은 "이번 협약을 통한



이차보전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과 지역민들의 대출금 이차 부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은행은 지역 상생의 사명

감을 가지고, 지역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삼성전자 지난해 평균 연봉 1억 2800만원

부장급 이하 일반직원 급여 산출

삼성전자의 지난해 직원 연간 평균 보수(연봉)가 1억 2800만원 안팎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최근 제출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2024년 삼성전자 직원 평균 보수와 인건비 변동, 월별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직원 범위는 등기임원을 제외한 미등기임원과 부장급 이하 일반 직원이다.

연구소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를 통해 파악된 삼성전자의 2024년도 직원 보수(급여+퇴직급여) 총액은 16조 1628억원으로, 이를 토대로 조만간 사업보고서에 공시될 임직원 급여총액을 역산출하면 15조 6779억~16조 2436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평균 급여액 산출에 필요한 전체 직원수는 작년

반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삼아 12만 5000명으로 추정했다.

연구소는 이를 토대로 삼성전자의 2024년도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급여가 1억 2500만~1억 299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1억 2800만원 안팎이라고 보면 2023년 실제 지급했던 평균 보수액 1억 2000만원보다 대략 연간 800만원(7%)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매출 대비 인건비 비율(인건비율)은 9.4%로, 재작년(10.6%) 대비 1.2%포인트 하락하며 다시 한 자릿수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